

기독교와 공산주의

성경말씀: 마4:1-4

오늘은 한경직 목사님의 기독교와 공산주의 설교

크리스천투데이는 故 한경직 목사님의 생전 설교 전문을,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제공으로 매주 한 차례, 소개합니다. 목사님의 생전 설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 한국교회에 생생히 올려 퍼지길 바랍니다.

한경직 목사, 118년 전

1902년 12월 29일 평안남도 평원군 공덕면에서 장남으로 출생했다. 오산학교(1916~1919), 평양숭실대학(1922~1925)에서 수학했다. 미국 엠포리아(Emporia College) 대학 1년을 수료(1926)한 후,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를 졸업했다.

활동사항

1932년 귀국 후 평양승인상업학교 교목 겸 교사, 숭실대학 강사로 활동했다. 1945년 8월 15일 윤하영 목사와 함께 기독교사회민주당을 조직하였다. 1945년 10월 월남 후 1946년 11월 12일 영락교회 창립. 1947년 11월 5일대광중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한국전쟁 중인 1950년 7월 3일, 대전에서 기독교구국회를 출범하여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1967년 숭실대학 이사장직을 맡았다. 1983년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총재, 한국 기독교·문화·교육 등의 분야에 평생을 헌신했다.

특히 한경직 목사님은 기독교의 철천지원수(불구대천의 원수)라 할 수 있는 공산주의와의 사상 싸움을 전개한 분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 땅의 가장 큰 원수, 공산주의

〈나라가 위태롭다: 공산주의 역사 왜곡과 교회의 역할〉, 1945년, 1948년 상황, 공산주의자들의 실제 북한, 소련, 중국

〈공산주의 바이러스〉 금란 교회 김정민 목사님

지금 이 시간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국가가 힘들다.

이런 자들만 없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통일 세계 5대 국가,

이자들이 지금도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한경직 목사님 같은 믿음의 선조들이 지킨 믿음을 버리고 있다.

교회 안에 노골적인 친중 종북 목사들 수도룩하다, 교회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의 숙주

이러한 시점에 한경직 목사님의 〈기독교와 공산주의〉 설교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 특히 4, 15일 총선을 앞둔 시점, 우리의 적이 어떤 세력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 가급적이면 원문 그대로, 어려운 말은 현대체로

(*) 나라가 있어야 교회 교파가 있다. 지금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 급선무

공산주의

8·15 해방 이후 대한 사상계에서 무서운 기세로 퍼져 나가는 세력으로 등장한 사상은 공산주의입니다.

대한이라는 말, 아직 건국 이전, 남한 땅을 지칭함, 최근에 공산주의는 신민주주의니 진보적 민주주의니 하고 개명을 하여 못사람의 머리를 혼미케 할 뿐 아니라, 지금 38선으로 말미암아 이국(異國)처럼 된 북한의 정치 사회는 공산주의 일색으로 되어 버렸고, 교회는 참으로 억울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현상이 이 정도가 되었으므로 내가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주제로 기독교신자의 입장에서 이 사상을 검토, 비판함으로써 이 혼돈한 현 사상계에서 우리 신자들이 걸어 나가야 할 노선을 명확히 파악하여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래로는 모든 동포에게 참된 길을 주어야만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본문을 가만히 보면 "...주리시니라"(2) "시험하는 자가"(3)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3)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류가

다 당하는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1) 첫째로 '굶주린 대중' 노동자, 농민, 소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의 양식도 찾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 (2) 둘째로는 '시험하는 자'가 있는데 이자는 대중이 주릴 때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 (3) 셋째로는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요지는 부당한 수단을 써서라도 "어서 먹어라, 먹어야 산다, 먹고 볼 일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면 시험이 아닙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데 시험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굶주림을 당하는 인류에게 닥치는 이 큰 시험을 인류의 대표로서 완전히 물리치고 이기셨습니다. 4절,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진리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 진리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사람은 빵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귀한 존재이므로 즉 영혼의 소유자이므로 육신만 살기 위하여 영적 생활을 희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 개조니 혁명이니 운운하는 이들의 실수는 대개 이 점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몰두하면서 사람이 단순히 먹고만 사는 동물 이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와 공산주의와의 관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마음에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 기독교는 사회의 제도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영적 생활과 관련이 있고 이 영적 생활을 윤곽하게 하는 것이 그 주요 사명이지만, 인간의 사회생활 특히 경제생활을 지도하거나 계몽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회의 사상이라도 단순히 사회 문제 경제 문제에만 국한되고 그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 종교와 사회 사상 사이에 마찰될 것도 없고 충돌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여 기독교도 영적 측면이 그 주요 세계이나 인간 생활 전체에 그 영향을 주고, 사회 사상도 어떤 것은 사회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 범위를 넘어서 어떤 형이상학적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선전하며 또는 종교를 곡해하여 무리한 간섭과 박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와 사상이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사회 제도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봉건 제도 아래에도 있었고, 자본주의 제도 아래에도 있었고, 또 어떤 다른 제도 아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제도와 하나로 결합하는 일은 없습니다. 봉건제도 아래에 있었지만 기독교는 그 제도와 결합한 적이 없었고 끊임없는 마찰과 비판을 하면서 존재하였고, 자본주의 제도 아래에 있었다고 해도 이를 전적으로 시인한 것은 아니고, 그 결합과 단점을 비판하여 투쟁해 왔습니다. 요컨대 기독교인들은 완전한 천국이 임하는 것을 고대하면서 이 불완전한 사회제도 아래에 있으면서 이를 초월하여 힘이 닿는 대로 사회를 기독교화 하기 위해(즉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 최선책: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그러나 이제 사회 사상이란 안경을 통하여 기독교를 생각해 본다면 기독교는 자본 계급보다 오히려 노동자와 농민 편에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보거나 구약 성경의 교훈(가난한 자 배려 등)을 볼 때 또 사도행전 초대 교회의 유무상통 제도를 볼 때, 그렇게 보입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차이

그러면 공산주의도 노동자와 농민 계급 해방운동이고, 기독교도 노동자와 농민 계급에게 복음과 해방을 주는 종교인데 이 둘이 항상 서로 반대하는 지경에 놓인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그러면 공산당의 사회 사상이란 공산주의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대체 어떠한 사상입니까? 이에 대한 향간의 관찰을 살펴보니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네 것 내 것 없이 누구나 다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사는 것

- (2) 일은 조금 해도 넉넉하게 살고 교육은 나라에서 시켜주니까 받을 수 있고, 병나면 치료비 없이 약값을 받지 않고 고쳐 준다
- (3) 능력에 따라 일하고 요구에 따라 준다.
- (4) 계급을 타파하고 남녀평등을 주창한다.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토피아 관념이고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혼돈해 버렸습니다. 이 유토피아 관념은 공산주의에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니고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 왕국, 신약에는 요한의 묵시록에 기록된 기독교의 천년 왕국 등이 이런 것입니다. 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등의 책도 이런 것을 그리고 그 외 못 성자나 이상주의자들은 이상보다 더 찬란한 유토피아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 유토피아를 지구상에 실현하려고 실험해 본 일도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나타나는 초대 기독교 수도원 등이 일종의 그런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천덕 신부의 공동체 생활 등...

그러므로 이런 유토피아는 인류의 공통된 이상이고, 공산주의자들만의 전용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의 핵심은 유토피아 관념이 좋으나, 나쁘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도달하는 길 중 어느 길이 바르냐, 그르냐에 있습니다. 그 길에는 (1) 기독교가 가르치는 길(예수님의 재림 후 천년왕국) (2)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길 (3) 기독교 사회주의자가 제창하는 길 (4) 플라톤의 <공화국론(共和國論)>(Republic)에 표시된 길 (5) 공산주의자들의 부르짖는 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의미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 걷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검토하기 전에 공산주의라는 말의 의미를 밝히기로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말은 모두 산업혁명 이후 19세기 초엽에 생긴 말인데, 그 기원은 1826년에 프랑스 사상이 하시엘이 '사회주의'란 말을 자기의 잡지에 처음 사용했고, 공산주의란 말은 그 해에 영국의 사상이 오웬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지금 공산주의라고 번역되는 'Communism'은 공공 부락(公共部落), 공유주의의 뜻을 가졌으므로 원래 공산주의란 말은 경제적 용어이지 정치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공산주의란 말이 사회주의란 말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돼 왔고 또 극히 광범위하게 다양(多樣)의 의미로 사용돼 왔습니다. 어떤 사회주의 사전에 보면 사회주의의 정의를 36개의 다른 의미로 기록했으면 이 외에도 사회민주주의(社會民主主義), 무정부주의, 집산주의(集産主義), 기독교 사회주의 등 복잡한 사회사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간격이 커짐에 따라 어떻게 하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지위를 향상시킬까 함에 있습니다. 이때에 독일에서는 마르크스, 영국에서는 엥겔스가 일어나서 1848년에 소위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공산주의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용되는 공산주의란 말은 이 마르크스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마르크스주의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르크스의 사회 철학인 변증법적 유물론과 유물사관에 의거한 이론입니다. 마르크스의 핵심 주장 혹은 이상은 자본계 급을 타파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향상시키는 사회 변혁인데 이것은 생산과 소비를 국유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물론적 사회철학을 가진 자들은 유물론에 중독되어 인간 생활에서 물질 이상의 것에 대한 감상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종교, 도덕, 예술에 대하여 전혀 이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종교관이 얼마나 피상적이지요, 맹목적인가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견해를 펼칩니다.

"종교는 자본주의의 결과로 생겨난 생활고에서 도피하기 위하여 생겼다. 그러므로 종교는 아편과 같다. 종교는 노동자들을 곤란한 현실에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린다. 또 자본가의 양심을 마비케 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가 없어지고 생활고가 없어지면 종교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 두 가지 큰 과오가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가 생활고로 인하여 생겼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종교가 생활고에 허덕이는 인간을 위안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활고의 원인은 아닙니다. 종교의 근원을 보면 이렇습니다.

(1) 기독교는 인간의 환난의 시기뿐만 아니고 행복할 때에도 즐거움과 감사의 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2) 인간은 도덕적 존재로 선을 탐구하며 양심적 생활을 동경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둘째로는, 모든 인생의 괴로움이 사회 상태, 경제 상태로 기인한다는 말도 잘못입니다.

(1) 어떤 괴로움은 천연적으로 옵니다. 병사, 천변, 지재, 등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인생은 결국 죽게 됩니다. (2) 경제적 이유 이 외에 자기의 죄로 인하여 오는 고통도 많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피상적으로 간주함은 유물론적 철학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 하면서 노동자 농민 대중에게 계급의식을 고취하여 정권을 획득해야 한다고 주창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계급의식만 있을 뿐이요, 민족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동일한 민족일지라도 다른 계급이면 적이요, 다른 민족이지만 동일 계급이면 그들이 사용하는 말을 빌려 '동무'가 됩니다. 민족적 독립보다 자기 계급의 정권 획득이면 그만입니다. 현상을 보아 대한의 좌익분자들이 대한 국호를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짖고, 장차 '소련 연방' 가입 운운설도 이러한 계급사상에 근거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 시대의 좌익들의 슬책과 동일하다. 네 편 내 편 진영 가르기, 심지어 중국 공산당을 더 좋아 한다. 민족에 상관없다. 같은 계급이면 된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계급 투쟁의 기록의 연결이라고만 보는 것은 큰 과오입니다. 생물계에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생존 경쟁이나 계급투쟁도 있고 또한 상부상조와 협조의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대한(조선 땅) 사람들에게 계급투쟁을 고취함은 거의 무의미하고 사실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큰 화를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대한에는 대지주 자본가들이 다 일본인이었는데, 지금 그들은 다 쫓겨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정부가 수립되고 재산을 공정히 처리한다면 대한의 노농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마르크스식 계급투쟁 설에 중독된 사회 운동자야말로 대한 민족의 반역자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애(愛)의 단결을 할 때입니다.

다음에 이 투쟁을 통한 혁명사상을 생각하건대, 물론 기독교에서도 때로는 혁명을 시인합니다. 참고로 여기의 혁명이란 체제에 대항하는 것(3.1 운동, 미국의 독립 운동 등). 그러나 혁명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용인됩니다. 할 수 있으면 혁명을 피하고 여론과 의회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진화적으로 사회 제도를 개조함이 희생이 적고 제일 유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사상에 중독되어 혁명이 필요치 않은 곳에도 혁명 운운하며 그야말로 평지에 풍파를 일으키고자 합니다.

지금 조국은 정당한 입법 기관과 정부만 수립되면 얼마든지 의회를 통하여 노농 계급의 권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혁명이 아니라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은 공연히 혁명 운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혁명은 사회 상태가 악화될수록 일어날 기회가 더 크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조국의 곤궁을 더욱 유도하여 인민이 더욱 곤경에 빠지도록 획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조 화폐 사건, 공출 방해 등은 무엇을 시사합니까? 이런 분자들이야말로 종교적 도덕적 견지에서 뿐만 아니고, 실로 인도적 견지나 민족적 견지에서 단연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깊이 반성하여야 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공산주의 독재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유물사관을 사회철학으로 하고 계급투쟁을 주창하는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게 됩니다. 계급투쟁과 혁명을 통하여 전권을 얻을 때까지 즉 독재와 계급 없는 사회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무자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본계급과 지식계급과 그 밖의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인물을 다 숙청하고, 봉건제도의 잔재인 종교와 도덕도 다 전멸시키고 생산기관이나 소비기관은 다 국유로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돈은 쓸 데 없고 물건은 우리가 필요한 대로 그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회, 자본계급에서 일으키는 전쟁도 다시 있을 수 없고, 맹렬한 생존경쟁도 없는 이러한 사회가 얼마나 좋은가? 참 유토피아가 아니냐?"

이런 사회를 누가 동경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훗날처럼 분명한 사실은 이런 사회가 형성되려면 꼭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정권과 경제권을 한 손에 잡은 이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사랑이 많아야 하며, 또 모든 인민은 천사처럼 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런 사회를 이루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여 인간의 성품이 이대로 존속한다면, 이런 인간을 데리고 공산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지속적인 독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독재자는 일찍이 역사상에 유래가 없는 큰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곧 그는 전권과 경제권을 전부 쥐고 백성들에게 고루 빵을 먹일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말과 같이 능력에 의하여 일을 시키고 요구에 의하여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런 사회에 자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는 것은 혹시 근심 없이 고루 먹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공산주의 역사, 숙청, 살이느 기근 아무런 자유도 없고 그저 일이나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는 사람을 옛날엔 종이라고 불렀는데, 공산사회에서만 인민이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또 이 공산사회에서는 계급이 없다고 합니다. 천만의 말입니다. 이름은 변할지 모르나 계급은 그냥 뚜렷이 존속할 것입니다. 치리자(治者) 계급과 피치치자 계급(평민), 혹은 공산당원과 인민이 그것입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미곡 공출을 시켜서는 일부는 공산당 간부에, 남은 부분은 공산당원만 배급하여 주고 일반 인민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또 모 연방에서 치리자 계급은 궁전에서 전날의 귀족과 동일한 호화스러운 생활하는 반면에, 평민은 저급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상식 있는 사람은 다 짐작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북한에 가서 보시오!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

또 그들은 말합니다. 독재는 과도기일 뿐이요, 혁명이 완성되면 완전히 민주주의가 된다.

그러나 현재 모 연방은 혁명이 있는 지 거의 30여 년이나 되었는데, 왜 독재가 계속됩니까? 내가 단언하는 것은 마르크스식 공산사회에서는 독재는 언제든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1) 러셀의 이론과 같이 사람이 일하는 것은 소유적 충동과 창조적 충동에서 나오는데, 공산 사회에서는 전자는 없어지고 후자에 의해서만 일하게 될 것이니 그것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곧 이 공산사회에서는 인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하여 독재적으로, 폭력적으로 노동을 강행하지 아니하면 국가를 유지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2) 그러나 인간의 본성인 소유욕은 그냥 남아 있어 일을 아니하고도 많은 소유하려고 할 터이니 이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독재가 필요하게 됩니다. (3) 고금을 막론하고 독재자는 자발적으로 권리를 내놓는 법은 없고, 또 '권력은 언제나 부패합니다.' 따라서 부패한 권력을 숙청하려면 혁명이 필요하고 혁명에는 독재가 반드시 따라가니 또 독재의 계속입니다.

독재가 없는 공산사회를 이루려면 그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인민 각자가 서로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가정은 일종의 공산사회입니다. 또는 각자가 지선(至善)하면 됩니다. 수도원이나 원시 기독교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재가 있어야 공산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종교나 도덕을 귀양 보낸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러므로 독재는 반드시 계속됩니다.

특징: 큰 정부, 무상 복지 프레임

공산주의와 도덕 윤리

마지막으로 공산주의 사상이 도덕과 인격에 미치는 일반 영향에 대하여 말하려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도덕과 윤리를 봉건시대의 도덕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는 '네 것 내 것 불변 없는 것이니' 성경의 제 8계명(도둑질)과 십계명이 쓸데없어집니다. 아무 것이나 다 공산이니까 아무 것이나 가져와도 도둑질이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는 도둑놈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또 가족에게도 봉건시대의 유물이니 신시대에는 정조라는 거추장스러운 관념을 내버리고 자유로운 성(性) 생활을 향유해야 한다고 부르짖습니다. 레닌도 "아이들과 일하는 데 장애가 없는 한 아내는 3일 만에

한 번씩 바꾸어도 상관치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제7계명(간음)이 무용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강간죄가 없어지고 이혼이 성행된다는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이런 사회가 어떠한 추태를 양성하겠습니까? 이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동성애, 낙태 등의 문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사상에 미혹되어 빠지는 것은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발표한 공산당 선언 첫 구절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한 괴물이 유럽을 횡행하고 있다. 곧 공산주의란 괴물이다." 저들의 말 그대로 공산주의이야말로 일대 괴물입니다. 이 괴물이 지금 삼천리강산에 횡행하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괴물을 베어 쓰러드릴 자가 누구입니까? 이 사상이야말로 계시록에 있는 붉은 용입니다. 이 용을 멸할 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

대한민국 자유 헌법

자유 번영, 행복의 70년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행, 이 유행을 쳐부술 자 누구인가? 기독교인들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지켜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